<발표문요약본>- 이 자료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30주년 전북인권운동포럼(2024.9.5.)에서 발표된 요약본입니다.

전북 탈시설 운동의 역사[1)]

<2007년~2023년까지>

양은주(풍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어떤 운동이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전복적인 이야기를 딱 내놓을 수 있지는 않아요. 운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새로운 논리를 말할 수 있는 토양이란 게 만들어지고, 그러니 지금같이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책, 출근길 지하철 160p. 박경석>

위 책 박경석 활동가의 이 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요구하던 1990년대 노동권 투쟁이 '권리중심 일자리'를 요구하는 지금의 토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 시설'에 대응했던 장애인 '시설 비리' 투쟁도 지금의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투쟁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시설'이 아닌 '시설이 문제'라고 인식하며 '탈시설'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지, 그 흐름이 전북지역 시설 비리 대응 투쟁과 탈시설 권리보장 투쟁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한국 장애인 탈시설운동의 역사와 전북의 역사

이상직의 <한국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역사, 2005-2021> 논문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탈시설운동의 역사에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6년 에바다 투쟁 모르시는분 없을거에요. 에바다투쟁은 7년 여의 긴 싸움 끝에 민

1) 본 발표문의 1> 김제영광의집~12> 참사랑낙원 사건까지의 경과보고는 김병용 前집행위원장이 정리한 내용을 참조함.

주적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지역사회 연대단체 조직과 학생운동 조직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1998년 양지마을 사건을 대응하면서 시설 운영자 법적 처벌과 시설 문제 관련 활동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 여러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3년 11월 2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가 출범합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미신고 시설은 물론 대형 사회복지법인 관련 대응 활동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시설정상화', '시설민주화', '비리척결', '인권보장' 등의 의제를 공유하며, 이사 해임과 시설장 교체를 공동의 목표로 2005년에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이하 시설민주화연대)가 결성되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조건부시설공대위는 2006년 1월 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연대체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시설인권연대**)로 전환합니다.

전북에서는 김제 영광의집 사건 대응을 하면서 이때 **전북시설인권연대**가 만들어집니다.**(2007년 8월)** 시설인권연대가 전북시설인권연대 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당시 장애계의 시설투쟁은 개별시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전개됐고, 아직 '탈시설' 이라는 용어를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못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북도 마찬가지였고 주되게 다뤄진 내용도 거주인 학대및 인권침해, 시설비리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최대로 할수 있는 조치가 시설폐쇄였습니다.

이후 2009년 김포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에서 8분이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나와 농성을 시작하는데 이 분들이 그 유명한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립니다. 이분들은 당시 석암재단의 장애인 감금, 폭행 및 비리에 맞서 싸우면서 더 이상 시설에서 살수 없음을 결의하시고 집이고 뭐고 없는 환경에서 탈시설-자립지원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벌입니다. 이 투쟁의 결과로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이 세워졌고, 이 투쟁은 전국 각지의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요구 투쟁의 단초가 됐습니다. 이때를 한국 탈시설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북시설인권연대가 2007년 김제영광의집 투쟁, 2008년 완주예수재활원 투쟁, 2010년 미신고시설인권실태조사, 익산 사랑원 투쟁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시설비리문제에 대응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료집 참조)

그러다가 전북판 도가니라고 불린 전주자림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전북장차연, 전북평와와인권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를 주축으로 한 자림원성폭력대책위가 만들어집니다. 자림원성폭력사건 해결과정에서 <민관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림원 피해자 48명이 체험홈으로 거주이전을 했지만, 행정에서 탈시설 지원은 없었습니다.

2017년 남원평화의집 투쟁이후 전북공투본(남원평화의집 사건과 자림원사건 공동해결을위한 투쟁본부)이 동력을 상실하며 전북지역 장애인시설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다가 2019년 장수벧엘장애인의집 사건 대책위가 꾸려지며 다시 전북지역 장애인시설투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장수벧엘 투쟁의 성과로는 '시설뺑뺑이'를 막고, 시설폐쇄 및 일부 거주인에 대해 탈시설을 지원한 것입니다.(필요한 주택마련과 코디네이터가 배치)

그리고 2020년 무주하은의집 대책위로 이어지며 2021년 전라북도 탈시설5개년 계획 발표를 이끌어 내고, 2023년 전북보성원 투쟁의 성과로 전라북도 탈시설-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이끌어 냅니다.

탈시설의 권리는 시설을 벗어나거나 다시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에 필요한 권리는 이동권부터 교육권, 노동권, 활동지원 등을 보장돼야 온전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2000년 이후 진보적 장애운동이 펼친 탈시설투쟁은 탈시설권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북탈시설운동을 이끌어 온 대책위 활동(쟁점 및 과제)- 자료집참조

1> 2007년 김제영광의집 사건 (전북시설인권연대 대응)
2> 2008년 완주 예수재활원 (전북시설인권연대 대응)
3> 2010년 익산 영산복지재단
4> 미신고시설 시온복지원
5> 미신고시설 작은샘골사랑의집
6> 익산 사랑원(2010-2011년)
7> 전주자림원 성폭력사건 대책위(2012년)
8> 전북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 사건
9> 남원 평화의집 대책위(2016년)
10>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성폭력사건(2016년)
11> 마음건강복지재단(2015-2016년)
12> 참사랑낙원(2017년)
13>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2019년)
14> 무주하은의집 대책위(2020-2021년)
15> 전북보성원 장애인 학대사건(2023년)

3. 전북 탈시설 지원체계 현황 및 탈시설시범사업의 과제

탈시설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 따라 시설폐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장연 투쟁(1842일의 광화문농성)의 성과로 문재인정부는 「장애인 탈시설로드맵」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탈시설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에는 탈시설에 관한 정의와 시설폐쇄 원칙 미제시, 지원대상의 한정성, 구체적 지원체계부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탈시설시범사업 종합적 검토와 과제, 김기룡-장애인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참조)

전라북도에는 탈시설시범사업 수행기관 4곳(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이 선정되었다. 탈시설시범사업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주요대상인데 전주는 최중증 중도장애인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활동지원 24시간 지원대상이 5명으로 최중증 장애인에 탈시설 지원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가 제외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주시 시범사업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직자 1명을 채용해 65세 고령장애인 2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타시도 시범사업과 차별화된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4. 닫는말 : 모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이어가야 할 운동. '탈시설운동'

전북시설인권연대에서 출발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전환, 이후 전주자림원대책위,남원평화의집대책위,전북공투단,장수벧엘의집대책위,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무주하은의집대책위를 만들어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17년 동안 인권침해 시설문제에 대응해왔고 부침이 있었지만, 그 활동들이 장애인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키오스크, 생성형 AI, 각종 플랫폼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더 착취당하는 노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지금. 살던 집에서 떠밀려 기저귀 교환 횟수가 삶의 질 척도가 되는 '요양병원'이란 게토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어쩔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쓸모'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을 잃게 만드는 또 다른 이름의 시설에 밀려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탈시설 운동은 '장애인'만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떠밀리지 않고, 가로막히지도 않는 시설 밖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가는 '탈시설 투쟁'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모두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운동이 '탈시설 운동'임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30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거듭 확인합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 <책>출근길,지하철 : 닫힌 문앞에서 외친 말들, 박경석, 정창조, 위즈덤하우스
- <한국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역사, 2005-2021>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이상직
-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유린 방치한 완주군청 : 2008년 12월 19일 함께걸음, 전진호기자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68728오마이뉴스 (2013.05.24.)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그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52 (복지부 국감에 벧엘장애인의집 사건 등장, 에이블뉴스)
-https://theindigo.co.kr/archives/21256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놓고 민관갈등… 전북옹호기관 "조사 잘못됐다? 알려 달라", 더인디고)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8 '거주인 학대' 대화 유출된 무주 하은의집… 전북도는 장애계 요구 묵살, 비마이너)
-탈시설시범사업 종합적 검토와 과제, 김기룡-장애인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